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회의 개최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논의 지속 -

금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한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4: The 64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가 2026.6.8.(월)-6.18.(목) 간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건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및 관계부처 담당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observer),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총 7,000명 이상(당사국 4,200여명)이 참석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및 관련 기관 참여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력화 문제가 강조되었으며,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장국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 35% 목표 달성과 제로 웨이스트* 등 10대 행동의제(Action Agenda) 주요 분야를 발표하였다.

* 튀르키예 영부인은 제로웨이스트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문제에 관심이 높으며, 2025년 11월 우리 정상 내외의 튀르키예 국민 방문 당시 우리 영부인도 동 이니셔티브에 동의 및 서명한 바 있음.

또한, 참석국들은 금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31차 당사국회의(COP31) 핵심의제 및 성과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을 위한 보고서(BTR,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1차 전지구적이행점검(GST) 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반영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배양을 위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개최된 무역-기후변화 대화에서 기후 관련 무역 조치의 준수 비용,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의 도전요소와 기회를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다수 참여국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여수에서 유엔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세부 의제별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샤름엘셰이크 감축 작업프로그램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당사국이 동 프로그램 지속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지속 시 △대화체 주제·범위, △운영방식, △전지구적이행점검(GST) 등 타 절차와의 연계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향후 COP31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전지구적이행점검(GST)*]

* Global Stocktake: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점검·평가하는 절차로 '23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시행

지난해 COP30에서 GST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서 금번 SB64 계기 '제1차 UAE 대화체'가 본격 개최되었으며, 기존 정례 트랙인

‘제3차 연례 GST 대화체’가 병행 개최되었다.

모든 GST 결과 이행에 관한 경험 및 정보 공유 촉진을 목표로 개최된 ‘제1차 UAE 대화체’에서는, 자원·역량배양·기술이전 관련 중점 논의를 포함하여 각국의 다양한 도전과제 및 지원 수요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GST 결과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와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국가 기후·재난 데이터를 활용한 적응 평가 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GST와 감축·적응 등 관련 작업프로그램 및 구성 기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제도적 일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GST 결과와 차기 NDC 수립·이행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개최된 ‘제3차 연례 GST 대화체’에서는 다양한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사례가 공유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제1차 GST 결과를 반영한 2035 NDC 수립 경험과 함께,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 기후대응기금 이관에 따른 정책-재정간 연계성 확보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일관성 강화 사례를 공유하였다. 동 대화체는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향후 제2차 GST 과정에서 재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기후변화 적응]

전지구적 적응목표(GGA) 의제에서는 작년 COP30에서 채택된 59개 벨렘 적응지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논의하였다.

적응지표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의 전진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각 지표의 정의·측정 방법(메타데이터·방법론)을 구체화하는 기술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기술 작업을 맡을 작업반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전문가 중심 구성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당사국 주도·참여를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아울러 적응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3배로 확대하는 목표의 명시여부, 바쿠 적응 로드맵(BAR)의 결론문 포함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논의는 오는 11월 차기 회의에서 다시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 밖에 적응 보고(AdCom), 최빈개도국(LDC),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WP) 의제가 함께 논의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후재원]

지난 COP30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작업 프로그램*과 베레다스 대화**가 이번 회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 Climate Finance Work Programme : 선진국의 재정 지원, 남남협력 등 파리협정 9조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2년 작업 프로그램

** 파리협정 2.1(c)조(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회복적 발전 경로에 부합하도록 금융흐름을 조성) 이행을 위한 대화체

기후재원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이행, 기후재원 접근성 확대, 민간재원 동원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전 세계 금융흐름을 기후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베레다스 대화도 시작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의로운 전환]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 의제에서는 제5차 글로벌 대화체 성과, JTWP 검토지침 개발 및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 운영화 절차**가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SB64 기간 중 합의가 요구되었던 JTWP 검토지침은 막판까지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되었으나, 공동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COP31에서 JTWP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 United Arab Emirates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 : 2022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설치하기로 결정되고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CMA5(COP28)에서 운영방식이 채택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작업 프로그램"

** 2025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CMA7)에서는 국제협력, 기술지원, 역량배양, 및 지식공유 증진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개발하기로 결정

한편, 제5차 대화체 성과와 JTM 운영화 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의장의

비공식 문안을 통해 당사국들의 다양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향후 비공식 회기간 작업과 COP31에서는 JTWP 대화체 성과, JTWP 검토, JTM 운영화 등 주요 과제가 지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조치]

기후변화 대응조치 영향을 평가·분석한 7개의 국가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조치가 국경을 넘어 타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GST 기술평가에 투입될 대응조치의 범위·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활동과 당사국 의견 등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1차 GST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마지막까지 대립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무역-기후변화 대화’에서 개도국은 대응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선진국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정책수단임을 강조하였다.

[기후기술]

기후행동의 이행수단인 기후기술에 대해 △기술집행위원회(TEC) 및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공동연차보고서, △기후기술센터(CTC) 운영기관 선정,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제2차 기술메커니즘 주기적 평가 등 총 4개 의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선도국과 개도국은 기후기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과 재정의 긴밀한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투명성]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전·현·차기 의장국(COP29~31)이 공동 개최한 투명성 고위급 대화에서, 당사국들은 2026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차기 보고서*의 적기 제출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개도국 투명성 이행 지원** 의제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재원 규모 및 향후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차기 회기(SB65)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파리협정 당사국이 2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NDC 이행현황 등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보고서

**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라 개도국의 투명성 보고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다자·양자 차원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

한편 우리 대표단은 지난 SB62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기후변화 적응 보고 교육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역량배양 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다.

[탄소시장 파리협정 6조]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의 운영과 국제등록부 등 관련 인프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이 논의되었다. 당사국들은 제6.2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으며, 사무국이 마련한 기술문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자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논의는 향후 COP31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제3차 의욕 대화(Ambition Dialogue)가 개최되어 제6.2조 참여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준비 현황과 협력적 접근법 운영 경험이 공유되었다. 당사국들은 보고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 환경 건전성 확보 등 이행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제6.2조의 효과적 이행과 운영 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과 식량안보]

농업과 식량안보 의제는 기후행동 이행수단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기후위기 속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식량안보 공동 작업'의 공식 결론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각국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자원 마련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합의 사항은 다가오는 차기 부속기구회의(SB65)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고도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산림]

COP30(브라질) 및 COP31(튀르키예) 의장국은 이번 SB64 회기기간에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장국 행사(6.8.)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행사(6.9.) 개최를 통해 「2030년까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및 역전」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30 산림로드맵에 관한 △추진배경 및 목적 △산림로드맵의 목차(안)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고 산림로드맵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에 관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COP 의장국은 2030 산림로드맵 작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항목에 관한 다양한 의견 및 사례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월 초 초안을 회람하고, 최종적으로 이번 11월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COP31 기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형 (044-203-4897)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책임자	팀 장	김경혜 (02-2100-7859)
		담당자	서기관	감예슬 (02-2100-766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팀 장	유재영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안호정 (044-201-6606)
	재정경제부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도익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김요한 (044-215-87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	책임자	과 장	지은환 (044-202-4670)
		담당자	사무관	손주영 (044-202-467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지연 (044-201-2051)
		담당자	사무관	곽상익 (044-201-2058)